第267回國會
(臨時會)

2014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4月4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위원장선임의 건
2.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3. 2007년도 상반기 개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보고

審査된案件

1. 위원장선임의 건 ····· 1
o 위원장(유재건) 인사 ····· 2
2.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 2
3. 2007년도 상반기 개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보고 ····· 5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덕구 위원장께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원내 제1당 간사인 제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건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재건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 제4차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임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서 구두추천을 통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이 구두추천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예,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는 유재건 위원님을 추천드리고요, 유재건 위원님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방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시는 우리 국회 내에 있는 국제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IOC 위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 역량이 있으신 유재건 위원장님이…… 또 아주 신앙심이 대단히 깊으시고 해서, 높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재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예,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심재엽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호성 예, 없으시면 유재건 위원님을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재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유재건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유재건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호성 위원장직무대행,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유재건) 인사

(10시11분)

○위원장 유재건 엄호성 위원장님께서 너무 사회 진행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 좋은 음성과 그 매너 덕분에 제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일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국회에 변변한 직책도 없는데 이 엄청나고 귀한 직책을 제 일생의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4일날 과테말라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활동할 기간이 두 달 남짓밖에 안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뛰신 위원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승수 위원장님과는 초년 때부터 제가 1년 선배로 만날 모시고, 국회에서도 지난 8년 동안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 위원장 자리를 학교 때 후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을 바랄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

2.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유재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의 건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평창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간사 간의 협의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광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동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적 대사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하계·동계 올림픽 및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각계의 모든 관심과 협조가 하나로 뭉쳐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월 IOC조사평가위원회는 평창 현지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논평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 적자 보전을 대한민국정부가 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대한민국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정부가 보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국회는 평창의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발표되는 2007년 6월 4일 전에 대한민국정부가 IOC에 제출한 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에 대한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정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회는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를 보전한다는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잠재적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건 위원장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지 결정을 위한 수능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동 현지실사에서 평가단은 우리들의 유치 열정, 경기장 시설의 집중화, 수준 높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회 운영 관련 적자 발생 시에 정부가 보증한 내용을 국회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회 개최지 결정을 90여 일 앞둔 이 시점에서 저희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IOC 위원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주요 국제행사와 유수한 국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국제 홍보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이고, IOC 윤리규정을 준수하면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창의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적자 발생 시에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 유치위원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수 부위원장입니다.

방재홍 사무총장입니다.

윤강로 국제사무총장입니다.

하도봉 협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결의안 제안을 해 주신 이광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홍 사무총장 방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간담회 자료 중에 채택의 건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정부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증에 대한 국회 지지 결의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IOC에서는 공식 후보도시에 대하여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직위원회의 재정 적자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그 보전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받아 2007년 1월 10일까지 다른 보증서와 신청파일과 함께 IOC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치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2일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강원도를 대표하여서는 강원도지사가 하나의 보증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보증서를 받아서 지난 1월 9일 IOC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실시된 IOC의 현지실사평가에서 조사평가위원회는 평창에 대한 최종 논평을 통해서 평창이 정부에서 재정 적자에 대해 보전을 약속하는 보증을 하였으나, 국회의 사전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1일 강원도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부의 보증분에 대한 국회의 지지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서 4월 중에 보증을 받아서 IOC에 제출하기 위해서 국회 평창동계올림픽특위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지 결의안은 잠재적인 재정 적자 보전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IOC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점과 특히 대한민국의 올림픽 개최 의지와 열망을 다시 한번 IOC에 각인시킨다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심 위원님.

○심재엽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재엽 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에 여쭤 보겠는데요, IOC 평가단이 정부 보증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보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IOC 측에서 우리나라의 회계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든 추경을 하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에는 일단 동의를 요청했는데 결의안 내용이 '보증에 대한 재보증'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동의 결의안'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처럼 '지지 결의안'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지지 결의안이 국회가 정부가 한 보증에 대해서 재보증의 의미가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거든요. 좀더 강한 표현을 써서 IOC 측에서 볼 적에 정부 보증에 대해서 국회가 확실하게 앞으로 의결해 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지지 결의안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처럼…… 국회법상 모르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이, 제목이 지지 결의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 결의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보증 결의안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유치위원회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지지 결의안 갖고도 충분한 것인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지지 결의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세환 위원 일종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네요?

○심재엽 위원 제안설명에는 지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의안에는 지지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하고 결의안 제목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장래에 예측되는, 말하자면 호스트시티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부담행위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지지 결의안으로 했던 것은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IOC도 이것이 호스트시티가 된 이후에 예상되는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IOC의 다른 대회 할 때도 똑같은 관행입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여기 보면 대한민국정부가 보증을 한다고 그랬고, 이것은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지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거기에 정부가 보증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거지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그러니까 '지지한다', '동의한다', 자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뜻은 대개 전달이 되는데……

○심재엽 위원 유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정진석 위원 소치와 잘츠부르크도 똑같은 케이스겠네요?

○위원장 유재건 그렇지요. 후보지에 다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손봉숙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손봉숙 위원 늦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많이 안 늦으셨습니다. 위원장 표결선거 때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중에 사례하고 그럴 때는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보증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2007년도 상반기 개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보고

(10시28분)

○위원장 유재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반기 개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 중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계되는 주요 대회를 간략하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사무총장입니다.

지지 결의안 자료 뒤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IOC 위원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대회와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참가해 왔던 대회들은 13개 대회와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난 1월에 토리노에서 있었던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해서 이때는 저희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손봉숙 위원 눈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재건 사무총장님, 중요한 특기사항만 하시고,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고 특별한 것만 지적해 주시지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앞으로 참가해야 할 대회들이 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16일부터 있는 제26차 OCA 총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대회가 되겠고, 이 중에는 IOC 위원들이 19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별해서 보시면 세 번째 스포츠 어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여기도 IOC 위원이 45명이나 참가하고 여기서는 3개 후보도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IOC 위원들이 2, 3명씩 참석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를 겸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종목별 단체에서 참가하는 대회도 있고 해서 유치위원회와 경기단체들과 같이 파견이 되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119차 IOC 총회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려서 여기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스케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유념하셔서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여기 씌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적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념하시라, 마시라는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 남은 동안 유치위원회와 저희가 긴밀히 연락하면서 역할분담도 하고 또 협력해서 도움되는 일들을 찾아서 긴밀하게 연락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유재건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한승수 위원장님 이하 유치위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달 남았고 두 달을 마무리를 꼼꼼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함도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차례 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 여름 평창에서 워크숍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주는 좀 멀다. 너무 분산되어 있다'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유치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속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이 있다고 그러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원주를 취소했지요? 왜? 근거리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런 거리 문제 때문에 원주는 없애기로 했다, 이것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최근에 대한체육회장께서 IOC 위원후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지요? 한국에서 IOC 위원 선임되는 것하고 또 평창 결정되는 것하고 같은 날, 이것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1년 6개월 이상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창 쪽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도만 했지. 그런데 결국에는 최근에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후보 사퇴하셨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평창 쪽의 유치전략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평창 유치의 큰 목적을 세웠으면 외부적인 장애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갔어야 됐는데, IOC 후보 그 건도 1년 반 동안을 좀 알 만한 분들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별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1년 6개월 동안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었는지……

인천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가 결정되어서 국민들은 환영하지만 저의 짧은 판단으로는 평창 유치에는 플러스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왜 이것을 조정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다 끝난 거지요. 이제 인천아시안게임 남았습니다. 국제체육행사 가 보면 그런 얘기를 아시아 체육계 인사들이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too greedy 한 것 아니냐고, 너무 욕심 많은 것 아니냐고. 남은 두 달 동안에 장애요인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참 답답한 거지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 버렸는데 이것 유치활동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두 달 동안에 그래도 어떻게 최대한 해낼 수 있을 만큼 조정을 해 낼 것인가, 그것을 저는 잘 풀어야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잘 돼야 된다는 뜻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건 꼭 성공하기를 생각하면서 귀띔하시는 말씀, 특별히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엄호성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유재건 엄호성 위원님!

○엄호성 위원 CNN을 보니까 광고방송에 평창 광고가 나가는데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우선 관계자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3월 21부터 했습니다.

○엄호성 위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이것을 본 외국 분이 '굉장히 좋은 아

이디어다' 얘기를 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소위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어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이것이 소위 우리와의 경쟁도시에 어떻게 전파가 되어서 현지 언론에는 어떻게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예.

○엄호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이 발언이 올림픽 규정에도 없는 얘기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스포츠 관련 언론이라든지 또는 소치나 잘츠부르크의 신문에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온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흥 국내 언론에 조금 비쳤고 해외 언론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엄호성 위원 매우 다행인데, 그러나 국내 언론에 비쳤다고 그러면 국내에도 이 해당 국가들의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는 분명히 자기 본국에 보고를 했지 싶은데, 이런 것이 참 우리의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치위 측에서는, 물론 국회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유치위원회 입장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이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지적을 저도 아는 어떤 대사로부터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당장 대구 육상 유치가 평창 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대구의 경우는, 2013년에 모스크바에서도 똑같은 경기를 하도록 2년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만일 아시안게임이 인천으로 온다고 그러면 육상경기연맹까지 2개가 오는 것이니까 평창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KOC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이미 이것은 정부와 KOC에서 결정이 끝나서 경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천시에 대해서 이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4월 17일 결정되는데 인천이 만일 실패하는 경우와 성공하는 경우 두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자마자 IOC 위원들 45명이 하는 북경에서의 스포츠 어코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한 인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중화시키면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건 고맙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느라고요.

평창특위 위원인데 할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안민석 위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봉숙 위원 열심히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외국에 한 번 갔다 와서 보고하고 최근에 모로코 다녀와서…… 모로코는 한·모로코 친선협회 차원에서 가서 모로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IOC 위원이 다행히 2명이어서 그래도 괜찮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부터 7월까지 특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유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외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돈이 드니까 못 간다고 할지라도 해외 체육계 인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들이 같이 모임에 참석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일은 국회에서 몇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든가 구체적으로 특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유치위원회가 그래도 조직을 하고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을 해서 보람있게 일을 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건 손봉숙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한 두 달 활동하는 add a committee 같은 위치에 우리가 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책임있게 그래도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에 동의하면서, 유치위원회 한승수 위원장님과 임원들과 제가 긴밀히 상의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분담할 것은 분담하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모여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유치위원회 한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숙 박세환 손봉숙 심재엽
안민석 엄호성 이계진 이광재
유재건 정진석

○청가 위원(1인)

채수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 종 현
전문위원	최 민 수

○정부측 참석자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 현 재

○기타 참석자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한 승 수
부위원장	최 경 수
사무총장	방 재 홍
국제사무총장	윤 강 로
협력지원단장	하 도 봉